Hallelujah News

할렐루야

통권 583호
06
2018

Hallelujah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2018 표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막 12:30-31)

권두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용기 목사
(화요중보기도 담당)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를 보건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더욱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뜻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 되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드러내실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의 때마다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주의 의로운 빛으로 비취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 평화와 복음통일의 길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막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은총,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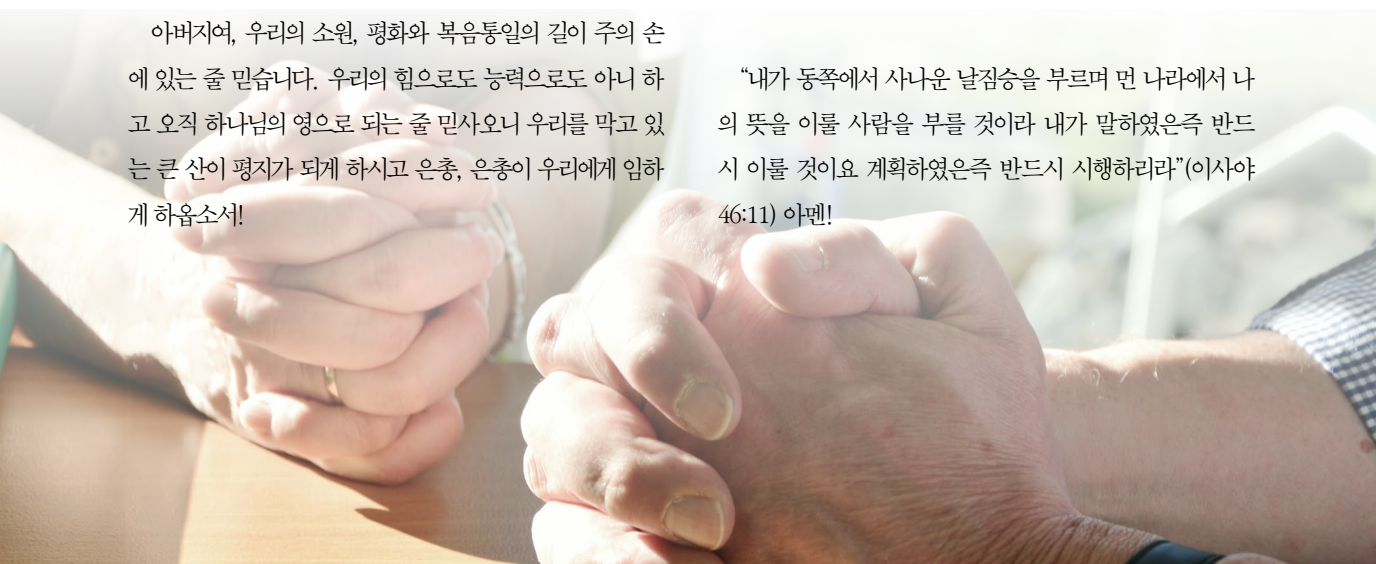
주의 뜻이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사 반드시 이루시고 주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한반도에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여호와여, 특별히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주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어떠한 강한 자라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만방이 보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우리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진,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는 한반도 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이사야 46:11) 아멘!



할렐루야교회
창립 1980. 11. 16

<표지>
꽃 앞에 광채로 인하여
한가득한 안개 걷히어
주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사
두손 들어 높이 높이
응답하소서...

제주 절물휴양림에서
글/사진 이춘희 권사

Hallelujah News 할렐루야신문사
1987년 5월 10일 창간
발행일 2018. 5. 30
우)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전화 031-780-9583 **간사** 010-6416-7030
e-mail news@hcc.or.kr

발행인 김승욱
지도목사 서계원
담당장로 정영원
팀장 여은구
총무 마준호 회계 이은경 서기 심희수
편집간사 지현아 디자인간사 김효진
신문위원 김원순 노신영 류의주 안주미
윤성승 이영림 이욱 이춘희
진주희 최은주 한정훈 황승국
교정 김학주
6월호 담당 황승국

사진 사진팀 박종각 유성욱 이종환 지준정 진형식

할렐루야교회 신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2018.06

CONTENTS

권두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02
말씀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04
특별기획	평양 산정현교회 재건의 날을 고대한다	06
	일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 루아캘리	08
국내선교	평신도에서 예수세움교회에 이르기까지	10
	할렐루야 만평	11
특강	학부모기도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	12
해외선교	모리오카교회에서 온 편지	13
연재	구약 한눈에 보기(17) - 소선지서	14
뉴웨이브	뉴웨이브 가족축제!	15
뉴시즌	시니어 공동체에서 뉴시즌 공동체로!	16
신앙문예	봉사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는 나의 신앙생활	18
	예수님의 그림책	19
탐방 - 북한선교회	우리의 봄, 가을 결실을 기다리며	20
행사	블레싱서밋	21
	은퇴권사와 함께하는 권사축제	22
간증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24
뉴젠	중등부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1)	25
문화	예배하는 우리집 / 이달의 추천도서	26
연재	마더와이즈	27
파랑새광장	할렐루야 소식	28
새가족	할렐루야 새가족	29
성경퀴즈	십자퍼즐	30
아트에세이	오늘도 괜찮아	31

할렐루야교회는

☐ **존재 목적(Mission Statement)**

할렐루야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We exist to glorify God by exalting Jesus Christ.)

☐ **비전 (Vision)**

'평신도를 일으키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

홈페이지 www.hcc.or.kr **전화** 031) 780-9500

제4계명 :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12-15)

김승욱 담임목사

오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제4계명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나 제7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 이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너희와 함께 이날을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도 그날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안식의 축복을 너뿐만이 아니라 네 밑에 있는 모든 고용인과 심지어는 가축들도 누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와 함께 묵는 객들이라 할지라도 너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됩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며 친히 보이셨던 자신의 모범이요 패턴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패턴을 당신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쓰이기 40년 전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을 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에스겔 20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표징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곧 우리가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해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반드시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뤄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나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 이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경우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한 장면을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황제가 궁중에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비싼 도자기를 부수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신하가 매를 맞게 된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

명기 말씀에선 이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5:15).

40년 전 시내산에서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제7일째 되던 날 안식하신 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선 그 말씀 대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땐 그곳에서의 구원이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직접 보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백성 중에는 그때의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함으로 그날만큼은 회중으로 모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릴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을 지속하며 살라."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땅에 묻히셨는지 아시나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전체를 땅에 묻혀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은 그때 음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음부까지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은 안식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삼고 우리의 안식을 축제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식일이야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날이 된 것입니다.

3 이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사58:13-14).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릴 채워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께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라고 설명하십니다(눅8:14). 세상의 염려와 부와 재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로 인해 만나를 하루 덜 모았지만,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모으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안식일을 고집함으로 하루 덜 공부하고, 도리어 시험도 못 보고 탈락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선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몇 배 이상의 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더 일하고 돈을 벌면 분명 앞서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길은 오직 믿음과 신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이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끝없는 경쟁과 억압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그의 안식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채워주심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참 안식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 또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끽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재건의 날을 고대한다

김상복 원로목사

평양 산정현교회 재건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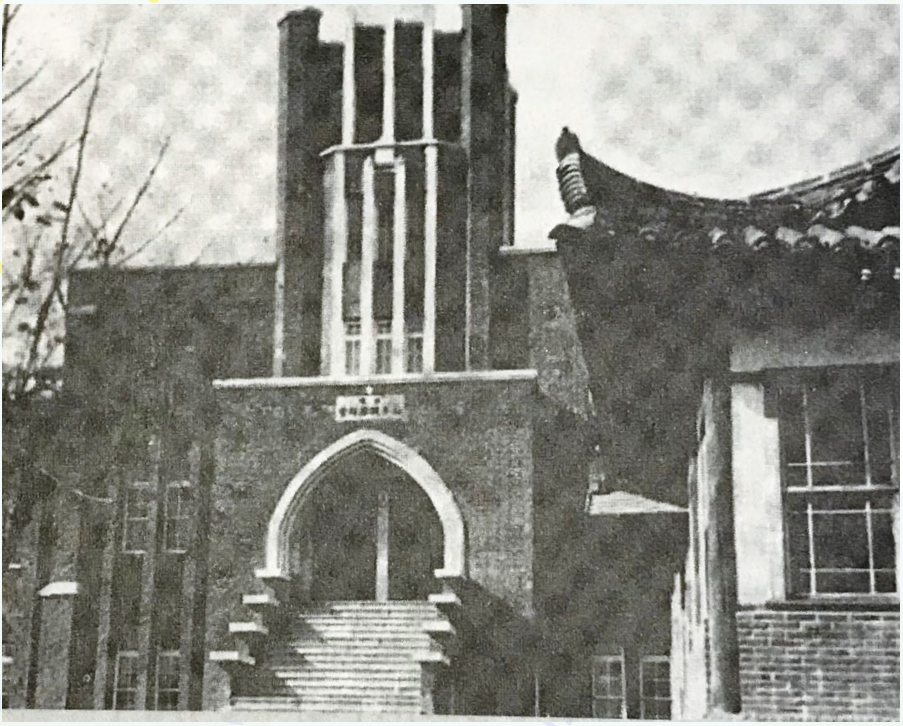
6월이 오면 6.25 전쟁과 민족의 가장 큰 아픈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진행되면서 한 가닥 통일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분단된 조국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기쁠까? 주여, 그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교회는 기회가 온다면 이미 사라진 평양 산정현교회를 복구하자는 결정을 당회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 교회는 모든 교단의 북한선교위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6.25 전 북한에 있었던 3,000여 교회들을 우선 재건하기 위해 치밀한 논의와 계획에 합의한 결과 북한교회 재건 백서를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출판물에는 북한에 있던 교회들의 이름과 주소, 역사, 당시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이름들과 그 북한교회들을 책임지고 재건하겠다는 남한의 교회들의 이름과 주소나 연락처들이 한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교회 재건 백서는 그 시대의 열망을 증언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잊혀진 북한교회 재건 백서

그러나 한국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북한교회 재건을 맡았던 남한교회의 담임목사님들이 모두 은퇴한 상태이고 현재 그 후임자들은 과거 북한교회 재건 계획을 거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할렐루야교회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평양 산정현교회를 기회가 온다면 재건하기로 했고 그 미래적 사역을 위해 북한교회 재건기금도 지정헌금으로 저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은 지금도 교회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300만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금방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남한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북한교회 재건 계획을 선교단체들과 함께 북한교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개발과 대학들을 포함해 복음으로 다시 세울 것을 심각하게 연구하고 합의했었습니다.

북한교회 재건 및 남북교회 협력위원회

그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평양 산정현교회 출신인 저를 북한교회 재건위원장과 남북교회 협력위원장으로 세워 이 일을 주도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주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 가정과 목회,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주 목사님의 주변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물들을 계속 출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슴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 마리 소 떼를 이끌고 북한의 고향을 방문했던 현대 회장의 엄청난 자금과 당시 남한 정부의 큰돈들이 북한 정부에 들어가면서 북한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출판했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한다』,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정책』, 『북한교회 재건 백서』 등 세 권의 책은 그 당시 비전의 열매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시간과 함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

북한에 세워야 할 15,000교회

북한 복음화는 예전에 있었던 3,000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를 고려하면 12,000교회가 북한 전역에 더 세워져야 합니다. 12,000교회에 대한 계획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독일처럼 갑자기 통일이 오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계획이 현재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다면 북한 복음화는 대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각각 개별적 계획을 들고 모두 북한에 올라갈 때, 남한처럼 한 빌딩에 서너 교단 교회들이 들어서는 부끄러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된 지금 한국교회가 탈북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21년 전 완성했던 북한교회 재건 계획과 같은 통합적 북한 복음화 계획을 다시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11명의 순교자들

평양 산정현교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36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투옥되어 고난을 당했으나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7년 동안 평양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해방 1년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1945년부터 6.25가 일어난 5년 동안에는 산정현교회 주 목사님의 후임들이었던 정일선, 김철훈, 방계성 세 분 목사님과 백인순 여전도사, 주 목사님의 큰아들 주영진 전도사와 그 사모 등 여섯 분의 목회자들과 조만식 장로님을 포함한 네 장로님들을 합해 열 분이 또 북한 공산주의 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의 산정현교회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2층에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평생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환란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등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또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어른들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3년 동안 온갖 매를 맞고 벌을 서면서 평양19인민학교를 마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입학시험에 나와 곤혹을 치렀으나 평양10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저는 주 목사님과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순교자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가서 저를 옆에 앉혀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찬송과 기도의 열기에 저도 모르게 어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자리에는 지금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국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한에 자유의 종소리가 울릴 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라도 다시 평양에 돌아가 산정현교회를 재건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3년 동안 신앙의 자유가 없던 북한 땅에 마음껏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울리는 그날이 내 생애 안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허문영 장로
(평화한국 대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 2~3)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개발로 전쟁의 소문이 꼬리를 물던 한반도였습니다. 테러가 우려되던 평창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북한 예술단, 응원단, 선수단의 전격 참가와 여자하키 단일팀구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었습니다.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감동적인 모습도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에 합의하여 세계를 긴장시키던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해법이 모색될 것입니다. 가을에는 평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민족의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풀리지 않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73년 묵은 민족의 숙원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탁월한 외교력, 김정은 위원장의 **'강성국가 건설전략'**과 용기 있는 결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정책과 추진력이 맞물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대북압박과 보장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1차 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2차 동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삼상 2:6)과 국가의 흥망성쇠(렘18:6-10)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잠16:9)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2018년에 놀랍게 일하실 것임을 미리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한국은 복음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해 12년째 **'세이레평화기도회'**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이레평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2018년 주제 성구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렘 33:2-3)를 주셨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위기와 전쟁설만 난무하며 한반도의 미래가 내다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5월 8일 평화한국 북한선교사이신 김모세 선교사님이 평양과기대에서 농업사역을 섬기다가 억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00여 명의 한끼 릴레이 금식기도자들과 50여 명의 일일 릴레이 금식기도자들과 함께 김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9명의 억류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7일 만에 웜비어 형제가 풀려났습니다. 3달 뒤에는 임현수 목사님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0일 1년 만에 김모세 선교사님이 먼저 구금되어있던 김동철, 김상덕 선교사님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성도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국적 선교사이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과 중국 국적 장만석 집사는 억류되어 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노력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2018년은 체제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1945년 북위 38도선의 국토분단,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8·15)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수립(9·9)으로 체제분단,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 동족상잔과 백성분단으로 인한 민족분단을 3중적으로 처절히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5년까지 국토분단 70년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3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500만 북녘동포의 영혼구원과 복음통일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하나님의 슬픔만 되었습니다. 민족근대화와 독립운동,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등 매 시기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 운동에 진력하여 하나님과 민족 앞에 기쁨이 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방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지던 평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생활 70년 뒤 해방을 약속하셨고, 이행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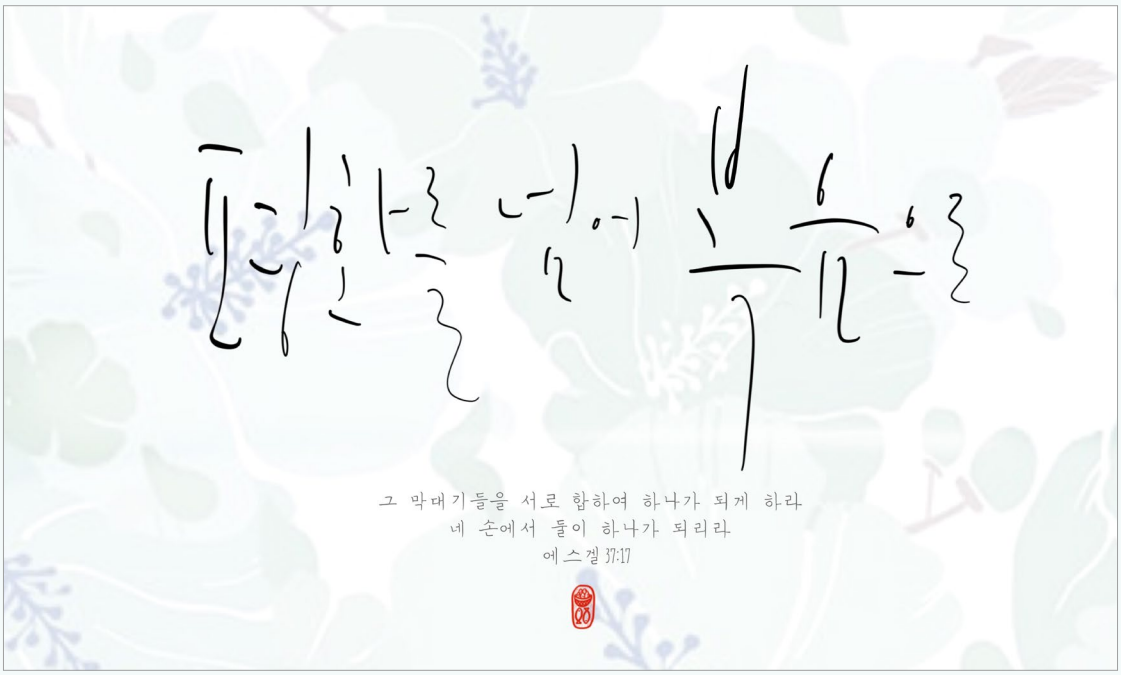
그러나 들뜨면 안 됩니다. 이제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73년 동안 유지되어 온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녘동포를 통치하는 **'통제와 세뇌'**의 체제유지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우리사회 또한 자유로 비록 성공은 했으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남북한 모두 복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통일의 대장정 첫발로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개선'**과 **'자유화'**와 우리사회의 **'성결, 경건, 정직'**을 통한 **'정의와 사랑'** 구현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계속 합시다.

우리의 해야 할 일,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며 복음통일을 준비, 실천합시다. 다음 3가지를 기도합시다.

첫째, 주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정직)와 정의(공평)가 실현되어, 온 누리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이 실천되어 북한 동포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님, 지난 70년 동안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소서! 130만 붉은 군대와 300만 공산당원과 2,500만 북한 동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하소서!

셋째, 주님, 우리 민족의 통일이 복음통일이 되게 하소서!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말씀 복음에 기초해서, 하나님 방식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 됨을 이뤄 하나님 선물 샬롬 평화를 이뤄가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에 복음과 샬롬을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루아캘리 이욱 형제(신문위원)

평신도에서 예수세움교회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절이 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 가끔씩이나마 생각만 해도 정겨운 그런 사람들, 내게 있어 당시 이용식 집사와 유정란 집사 부부(현재 예수세움교회 목사와 사모)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착하다 못해 순진무구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형님과 형부라고 불러주던 좋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유정란 집사는 당시 교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는데...다름 아니라 비교적 조용하고 보수적이었던 우리 교회 기도회 시간만 되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토록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더니만....그런 그들이 이제 진정 목사와 사모로 세워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평신도로부터 목회자 부부로 부르심(calling)을 받아 '예수세움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나누어본다.

황승국 집사(신문위원)

그리운 모 교회!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께 고개 숙여 문안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제법 잘 되던 무역 사업이 이해할 수 없이 막히며 죽음까지 상상했던 시기, 2008년 1월,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던 저는 할렐루야 교회로 인도 되었습니다. 중년까지 내가 하나님 된 모든 삶을 부인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 후 예배와 사랑부, 전도폭발, 북한 선교회 등등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 저는 예전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에 적응되어 갔습니다. 오직 생업의 길을 열어줄 하나님을 바랐지만 생업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자존심까지 버리고 고된 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도 전혀 관심 없던 북한집회들을 통해 시대적 눈을 뜨게 하시고, 북한과 탈북동포들을 향한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심으로 동역자들과 교회 안에 매주 북한기도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쉼없이 고되고 하루하루가 막막한데도, 탈북동포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영혼 살리는 일에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북한선교회 안의 여러 가지 사역을 동역자들과 일으키게 하시며, 교만했던 저희 부부를 여러 면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더 구체화되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길인 신학대학원, 오직 그 길만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오직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대원 입학 후, 오직 만나로 생활하는 재정훈련과 또 숨 막히는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외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육신의 가장으로서 절망의 싸움 속에, 연로하신 어머님과 가족들은 한 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히려 선하게 양육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독하게 올라오는 교만과 죄의 올가미 가운데도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일시적 삶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만을 소망케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

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안식과 자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대원 동안 열악한 지하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을 섬긴 후, 3명의 불신자와 저희 집과 또한 어느 탈북민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장소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대상과 교회 일부 물품을 공급하시면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교회 개척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 갑작스러움은 정말이지 전혀 내 개인적인 계획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였습니다! 경험도 대책도 없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손만 바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016년 12월 3일 분당 율동공원과 인접한 광주오포 작은 장소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세움교회'를 기적으로 마련해 주셨고 뜻하지 않은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눈물로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신자 세 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저희 가정과 동기 전도사님 두 부부 포함 약 1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불신자분들이라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개척 할 때 주신 말씀을 체험하며 오직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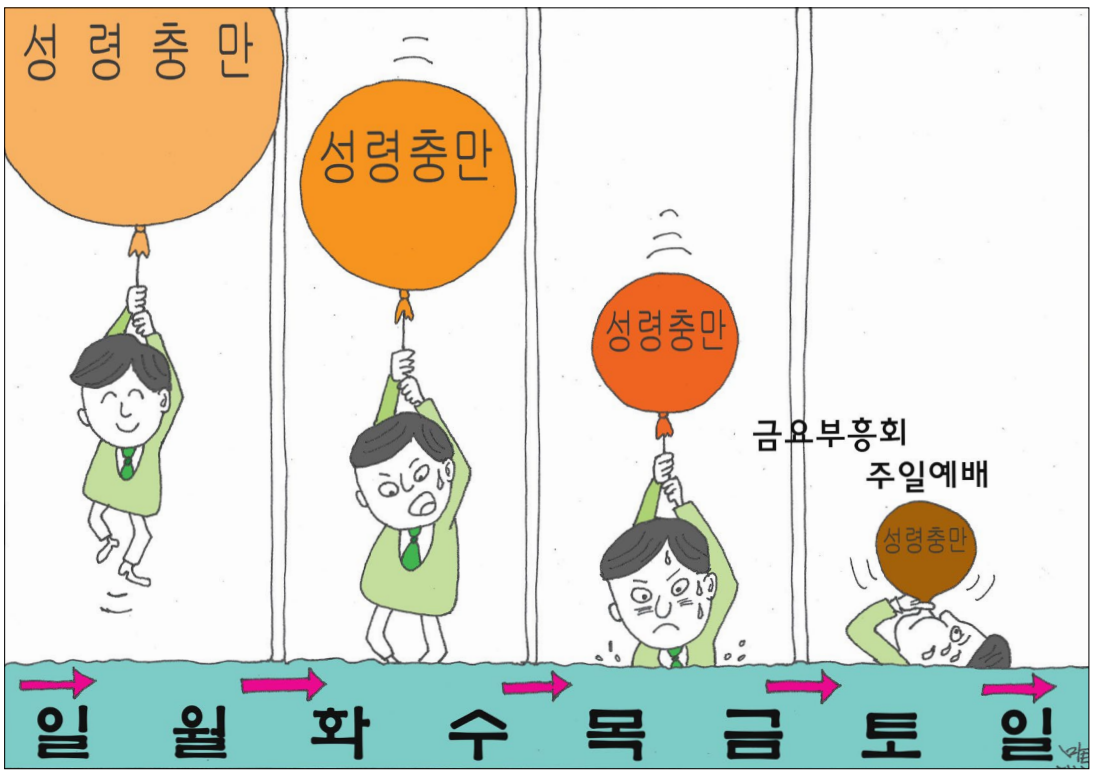
부족한 저희 부부를 오직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특히 불신자 가정인 저희 믿음이 폭발하게 된 복음폭발! 전도폭발팀-과 인내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천 대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교회가 되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세움교회가 되길' 특히 저희 부부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살롬!

이용식 목사(유정란 사모, 예수세움교회)

할렐루야 만평

반복되는 내영혼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앙일보 박용석 화백 만평('15.3.21) 패러디

글 • 그림 마준호 집사(신문위원)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

주정은 집사(7교구)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참석 시 연락처를 남기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반이 편성됩니다. 이번 달에는 <'잘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김종선 사모님께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잘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실패했거나 좌절감을 느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살 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살 길을 제시해 주려면 먼저 부모의 삶 속에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시127:1-2, 시128:1-4, 잠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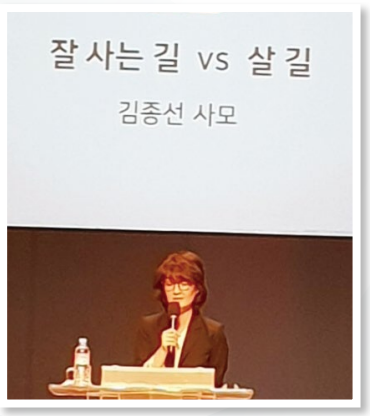
둘째, 살 길은 부모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예배할 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잠4:1-9).

셋째,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인식 3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은 학력과 지위에 달려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행복은 관계로 인해 좌우됩니다. 또한 대인관계의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에 그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쓴 뿌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대, 사회, 세계에 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넷째, 살 길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아닌 더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삶에 새 패턴이 필요합니다. (롬12:2 , 잠3:21-26)

또한 성과가 아닌 성품 만들기에 주목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회복의 능력은 은혜라는 품 안에서 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순복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 저는 모세가 살인하는 장면(출2:11~12)을 읽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죽이기 직전에 나타나셔서 살인하지 않게 도우시는 것을 상상했었습니다. 또 창세기(39:20-23)를 읽으면서는 요셉이 옥에 갇힐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요셉이 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다시 읽어 보니, 하나님은 모세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 미디안 생활을 허락하셨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도 고난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니.. (창46:3)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았던 형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까지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45:5, 창50:20-21)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은 택하심을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김종선 사모

성경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 세대를 걸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이고,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장해서 보니 출애굽기의 주인공도 시편의 주인공도 하나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점에서 강의를 들으니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 사모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제게 있고, 고난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가정이 제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한나의 기도(삼상2:6-7)를 묵상하며 '할렐루야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QR코드 찍고 학부모기도회 다시 보기

모리오카 교회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원정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7년 4월부터 일본 이와테현의 중심지 모리오카시 모리오카 성서침례교회에서 콘도우 담임 목사님과 치오리 사모님을 도우며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모리오카시는 인구 30만 명이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시내에서는 후지산과 비슷하게 생긴 이와테산이 보이고, 키타카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테현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대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제가 섬기는 모리오카 성서침례교회가 거점지역이 되어서 연안지역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내었고, 지금도 복구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 가면 많은 비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2017년 10월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성경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는 비기독교인 신 사오리상, 카스미상, 아키코상이 오시는데, 전보다 많이 친해지고, 신뢰관계가 쌓여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오리상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많은 분들을 소개해주시고, 또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사오리상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어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오시는 노구치상을 만나 정기적으로 식사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알아갈 때, 너무나 기쁩니다.

콘도우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리오카 교회 형제자매님과 함께 지역 분들과 이와테현, 일본을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원정아 선교사
(일본)

기도제목

1. 모리오카 성서침례교회 콘도우 목사님, 치오리 사모님, 형제자매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되도록
2. 지금 만나는 사오리상, 카스미상, 아키코상, 노구치상, 키무라상, 무시카베상이 예수님을 믿도록, 더욱더 새로운 만남이 주어져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도록
3.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선교지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소선지서 한눈에 보기 1

백명렬 목사(8교구 담당)

1 호세아 - 약 B.C. 755~715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은 다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왔습니다. 호세아는 단순히 '구원'이란 뜻이고 여호수아와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예언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불행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불행의 강렬한 예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선지자와 그의 부정한 아내(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불충실한 백성 사이의 일방적인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신부는 창부같이 행했고 다른 연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배반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도망간 아내를 찾게 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그의 아내를 노예 시장에서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것을 의미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정결케 하는 심판과 뒤이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전개됩니다. (1) 간음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1-3장) (2) 간음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4-14장)입니다.

2 요엘 - 약 B.C. 835년

성경에 요엘이 여러 명 있는데 브두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1:1). 요엘은 남유다에 있었던 최근의 재앙을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에게 예언적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온 땅을 뒤엎은 메뚜기 재앙은 모든 초목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그의 설교의 출발점으로 사용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혹독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온 어떤 군대가 내려와 그 나라를 공격할 것이며 메뚜기가 남긴 황폐함보다 더 심하게 그 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32)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날이 도래하기 전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3 아모스 - 약 B.C. 760~753년

아모스란 이름은 이 책에서만 이름이 나타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7:14)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사업들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누차 아모스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를 개혁자로 보내주셨으나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호소를 거부하자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오바댜 - 약 B.C. 848~841년

두 쌍둥이 형제-에서와 야곱-(창27)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한 갈등은 결국 그들의 후대 백성들-에돔과 이스라엘인-간의 민족적인 적대감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민20:14-20). 적군들이 예루살렘의 문들을 부수려고 강타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에돔인들은 적군들을 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국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가능을 감당하지 않은 까닭에, 에돔인들은 언젠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선지자 오바댜는 에돔이 어떻게 '영원히 멸절될'(10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호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세상의 심판주로 인식될 것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5 요나 - 약 B.C. 782~753년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아밋대의 아들로 이스라엘왕 여로보암2세(주전782-73)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사악한 앗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게 하셨을 때,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 그 대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하는 바를 좌절시키시고(그를 바다에 던지심으로써), 또한 그를 보호하심으로써(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했고, 이를 위해 요나는 가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공적이었고 니느웨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를 하지만, 그 선지자는 이에 화를 내고 낙담을 합니다. 그는 먼저 죄악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했습니다.

New Wave 가족축제!

하기진 집사(8교구)

아이들이 어릴 적엔 그래도 명색이 어린이날인데 집에서만 보내는 게 미안해서 멋모르고 인파 가득한 놀이공원에 데려가 서로 더 파곤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큰 후에는, 예매하기 힘든 공연 티켓을 구해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위안하기 일쑤였는데, 올해는 뉴웨이브 공동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해주신다고 한다.

아니 이렇게나 감사한 일이! 오랫만에 미세먼지 없이 청명하게 맑은 하늘과 반짝이는 햇살, 하루가 다르게 푸른 잎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나무와, 그 사이를 산들산들 오가는 봄바람- 와, 근래에 보기 드문 완벽한 날씨 마치 봄소풍 가는 것처럼 괜시리 마음이 설렌다.

자리를 잡고 앉아 둘러보니, 군데군데 아직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영유아부 사랑방부터, 아이들이 끼리끼리 놀 줄 아는 유초등부 사랑방까지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듯 하다. 이름은 몰라도,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 낯선 얼굴이 보여도 반가운 마음이 앞서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 평소 안쓰던 팔다리를 흔들며 찬양을 하는 것도 그리 쑥쓰럽지 않다.

그리고 이어진 남명안, 김성현 집사님의 레크레이션- 처음에는 쑥쓰러워 하는 듯 하였으나, 그것은 페이크였다!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아이들의 흥을 적절히 받아주면서 부모도 다루기 힘든 아이들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매끄럽게 다뤄나가는 진행 솜씨에, 실은 프로가 아니냐는 어른들의 감탄사가 이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마주한 섬기는 분들 얼굴에 가득했던 흔쾌한 웃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다. 그 웃음과 함께 먼저 내밀어 주시던 손길은, 아무것도 도와드리는 것 없이 받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 한 켠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며, 지금은 나의 마음 빈 곳을 흠뻑 채우는 것이 그분들의 기도 응답이고, 주님 안에서 순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집 근처 동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친구 엄마들에게서 수련회와, 운동회에 초대하는 것을 전해 들을 때마다, 완곡하게 거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뉴웨이브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새로운 장소에서 마주하는 얼굴은 또 얼마나 신선한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뿌리내려진 관계가, 슬픈 일에도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무엇보다도 이번 어린이날은 내게 숙제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획하시고 준비해주신 날씨와 행사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가 어린이가 된 느낌이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라는 호칭을 떠나, 그냥 내가 아이가 된 느낌... 그래서 더 감사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그 날, 그 하루가.

New Season

이제는 뉴시즌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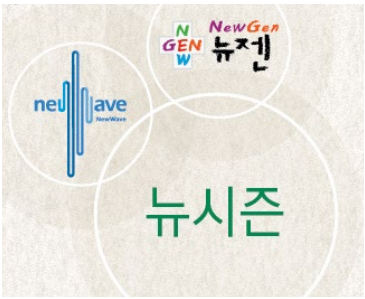
윤영근 목사(뉴시즌 공동체 담당)

주일예배를 마친 후 2층 로비에 내려가면 녹색바탕의 글씨가 보입니다. '이제는 뉴시즌(New Season)공동체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이제 할렐루야교회는 본격적으로 뉴시즌 세대에 대한 정책을 보완·발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3가지 주제로 간단히 뉴시즌 공동체를 설명해 드리고 5월 13일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체 성격변화, 연령별 모임으로 인한 구성 설정, 일원화된 뉴시즌 사역 확정이라는 3가지 주제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 성격변화

'시니어공동체'라는 이름에서 '뉴시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이 이름을 바꿀 때는 개인의 큰 결심이나 그의 인생을 그 이름에 맞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담습니다. '시니어'라는 영어단어는 매우 귀한 영어단어이지만 시니어 세대를 위한 격려로의 단어로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시니어라는 경계에 들어서면 은퇴, 쇠락의 의미가 더 많아져 인생의 동력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뉴시즌(New Season)'이라는 이름을 채택하였습니다. 뉴젠, 뉴웨이브라는 기존 할렐루야교회 공동체의 통일성 있는 비전의 맥락을 위해서라도 뉴시즌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뉴시즌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대를 본인의 인생에서 의미 있게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연령별 모임으로 인한 구성원 설정

'뉴시즌 공동체'는 정해진 뉴시즌 연령대 안의 연령별 모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지합니다. 기존의 소그룹 모임인 교구별 사랑방 모임의 연속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으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연령별 모임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후반기 때 뉴시즌 공동체의 예배 일정이 정해지면 기쁨의 예배를 나누고 은혜의 연령대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이때 연령대별로 일어나는 삶의 작은 은혜들을 나누고 가족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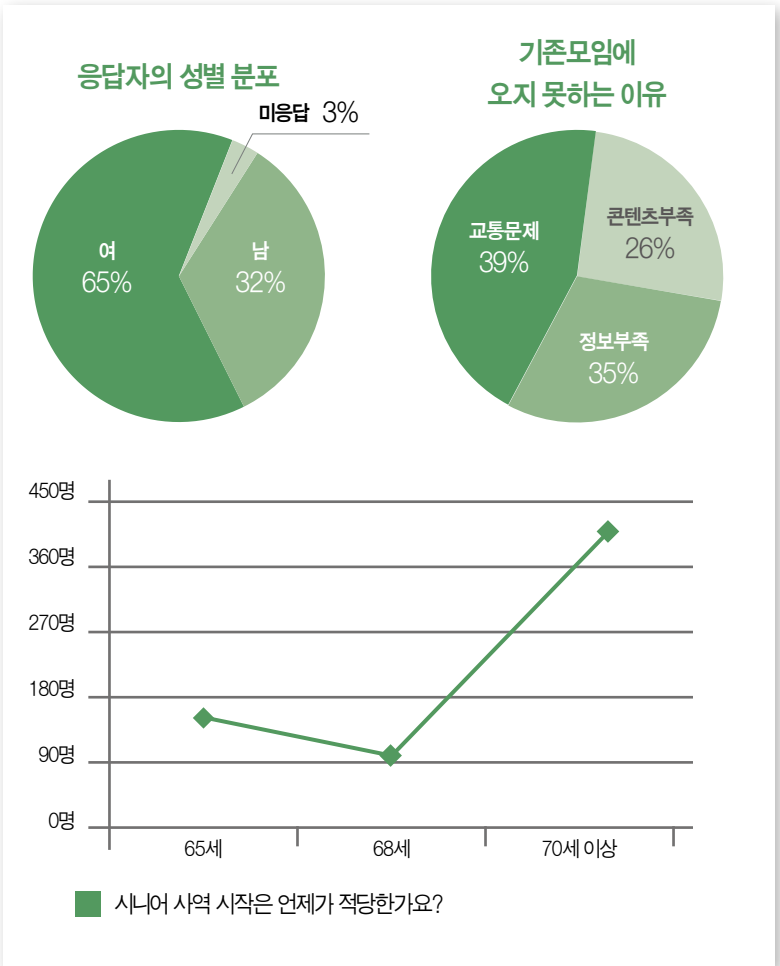
일원화된 뉴시즌 사역 확정

'시니어공동체'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역들은 쉼터(주일 돌봄), 늘푸른대학(주간경로대학), 러닝시니어(주간 동아리모임 및 섬김 사역)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사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흡수하여 재편성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해 온 늘푸른대학과 러닝시니어 사역은 뉴시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좀 더 좋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인 뉴시즌 공동체는 위에 언급한 연령별 세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중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영성 사역을 최우선적으로 보강할 것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5월 13일 설문조사의 의미

5월13일 700명의 성도들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뉴시즌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정보는 옆의 통계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응답하신 많은 분들이 뉴시즌 전체 모임과 뉴시즌 소그룹 모임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뉴시즌 공동체 설립과 연령대 모임의 활성화는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뉴시즌에 맞는 특강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준 있는 특강준비를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니어 모임 참여에 미흡한 부분에서 교통문제가 선(先)처리 되어야 할 주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시즌 시작 연령대는 70세부터라고 말해주신 분이 417명, 65세부터는 159명, 68세부터 99명의 순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저희 뉴시즌 공동체는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여 할렐루야 사역에 가장 적실한 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사역은 뉴시즌(New Season) 공동체입니다.



〈설문 결과〉

봉사와 함께 걸음마를 배우는 나의 신앙생활

이형우
(1교구)

저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탯줄을 잡고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의 한 성도입니다. 어려서부터 찬송가를 들으며 자랐고,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컸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가 재미있고 성경말씀이 재미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멀리 다녔습니다. 지금에야 서울에서 분당으로 다니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주일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지하철로 교회를 가야하고 주변의 친구들은 TV에서 하는 아침만화도 보고 천천히 준비하고 교회에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를 가야하지? 이 고민을 8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 가까운 동네 교회로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안돼!'였습니다. 적어도 이유는 알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저에게 멀리 있는 학교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성화로 찬양대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은혜... 그때는 은혜라는 걸 잘 모르던 때이니 감동 그리고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자연히 부모님께 교회 간다고 하고 차비 받은 걸로 다른 곳을 가게 되었고 그러다 걸리면 혼나고 그렇게 반복된 저의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의미하게 지나갑니다.

대학에 가니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신학교에 교회가 생겨 자연히 그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있었기에 주일날 해왔던 부산스러움이 사라져 좋았습니다. 그때는 초등부 교사도 하고 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느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찾으면 응답하실 거라는 말을 듣고 꼭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듣고 싶어 교회에 가고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가 걸었던 좁은 길을 따라가자 이런 멋진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세상에서는 제가 중심이었고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 지냈었나 부끄러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연히 집근처였던 할렐루야교회에 와서 김상복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차분하면서도 그때의 저를 꾸짖는 듯한 설교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여자 친구와 할렐루야교회를 몇 번 더 다니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교회에 다니고 시간은 가고 김승욱 목사님께서 오시고 저는 중성전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첫째 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새꿈1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지나서는 와이프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고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는 밖에서 티비로 보고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일날 교회가면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듣는 말을 "오늘도 밖에 있을 거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티비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라고 물으실 때마다 "그냥 답답해요" 라고 하면서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티비로 온전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티비 근처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습니다. 자리 없으면 다른 곳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쿨하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핸드폰을 보고 예배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싫었지만 편하니까 그리고 익숙해졌으니까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에게 봉사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새꿈1 예배를 드리는 지인의 남편이 방송팀에서 카메라 봉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 아빠도 사진 찍는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함께 방송팀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봉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묻길래 단칼에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도 고민 좀 해보지 단칼에 자른다며 투덜거리다가 그렇게 서로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와 와이프가 있는 새꿈1 교실로 오니 처음 보는 분이 "혹시 현이 아빠세요? 저는 가영이 아빠예요. 사진 찍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함께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그때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달 즈음 지나서 교회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교회도 다니고 있잖아..... 근데 막상 천국 가서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으시면 이렇다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창피해졌습니다. 항상 와이프에게 당신이 모태신앙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 알지 못하는 종교지식을 앞세워 무안을 줬던 일들, 그리고 현이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던 일들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제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치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봉사 이야기했던 거 아직 가능할까?" 그러자 와이프는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주에 처음 봉사 제안을 주셨던 유집사님(가영이 아빠)을 만나서 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방송팀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카메라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촬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카메라 위치가 강대상 바로 밑에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죠. 근데 조금씩 저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한 번은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해왔던 행동들 중에 크게 성경과 맞지 않는 몇 가지들을 하지 않게 되었고 진심으로 예배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와이프도 영아부 보조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어 저희 집은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크게 바뀐 점보다는 제 스스로 그동안 헛되게 보냈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말에 어울리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멀리 교회 다니는 것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요. 새 생명교육 신청했다니까 엄청 놀라셨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구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집사님께서 저에게 봉사이야기를 하시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믿음은 진행 중이며 봉사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말이지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책

글/그림 안주미 집사(신문위원)

눈물 방울방울 , 기쁨의 열매로 맺혀 돌아올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126:5)

우리의 봄, 가을 결실을 기다리며

김원순 집사(신문위원)

지난 4월 27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반도의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났다. 그 동안의 불안과 걱정이 무색하게 봄은 성큼 왔고 이제 여름으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 우리 할렐루야교회가 섬기고 있는 원코리의 연합사역이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며 5월 13일 할렐루야교회 선교공동체 소속 북한선교팀과 통일 비전팀을 만났다.

우리 교회에서 탈북민을 새터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에서도 살아보고 남한에서 살고 있어서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통일민'이라고 칭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선교공동체 내에 북한선교팀과 통일비전팀이 있다. 북한선교팀은 교회의 통일민 사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통일비전팀은 교회 밖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역은 연합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선교팀의 사역은 통일민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 대 일 멘토링과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새신자반, 확신반, 새생명, 새소명반, 전폭 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반찬나눔 사역을 하고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돌봄 사역도 하고 있다. 특히 다음세대를 위한 학업지원 사역은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영어, 수학 등 집사님 두 분의 섬김으로 주 2-3회 개인 공부방 운영도 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민을 위한 대안 학교 지원사역도 하고 있다. 통일비전팀은 하나원 사역, 대안학교지원과 통일민이 목회하는 작은 교회 지원, 통일 선교단체 지원 등 대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통일민 등록 교인은 55명 정도이고 목련, 청솔, 한솔마을에 나누어 생활하고 있다. 요즘 접하는 남북간의 뉴스에는 정치적인 부분의 개입 없이 복음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

곧 있을 북한 선교 주간-정식명칭은 'Mission for One Korea 2018'-은 6월 12일(화)부터 6월 17일(일)까지 6일간 있을 예정이며 전 교인대상으로 본당 및 중성전에서 화요중보기도회, 수요초청예배, 금요부흥회, 주일예배 시간에 말씀선포가 있을 것이며 통일선교사역 소개와 전시, 북한음식 체험 등 행사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팀과 통일비전팀의 비전과 할렐루야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며 많은 통일민들을 먼저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부탁이었다. "매 주일 오후 1시에 202호에서 북한 선교 중보기도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교인 참석 가능!)

인터뷰에 응해주신 손창국 집사(통일비전팀장), 김태욱 집사(북한선교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기아 권사(블레싱서밋 부팀장)

2018년도 봄 전도축제 블레싱 서밋(Blessing Summit)이 5월 16일 수요일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180여 명의 VIP가 참석하여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장옥 목사님의 재치 있는 사회와 게스트 자두 사모의 간증과 찬양, 김승욱 담임목사님의 복음제시로 참석한 VIP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점심식사를 하는 복잡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VIP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사무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고 당일 각 교구 임원단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구석구석에서 기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블레싱 서밋의 연장선에서 드려진 20일 주일예배에도 65명(청장년 27명 포함)의 VIP가 오셨습니다. 블레싱 서밋은 끝났지만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18

은퇴권사와 함께하는 권사축제

김승희 권사(권사회 회장)

개막 축하공연 /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작년에 이어 권사회에서는 5월 15일 권사축제를 열었다. 합창, 찬양과 율동, 음악극, 국악찬양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른 무대를 선보였으며, 두 달간의 맹연습으로 모든 조가 작년보다 훨씬 향상된 기량으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공연을 벌였다. 작년 원로목사님 사모님의 깜짝 제안으로 결성된 사모팀은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마지막에 '권사님♥사랑해요' 카드를 들어 올려 권사님들을 감동시켰다.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조마다 많은 권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은퇴권사님들이 제일 많은 2조는, 행사 당일 새벽 4시부터 31명의 꽃 장식을 만들어주신 권사님이 계셨고, 두 달간 매주 25명 이상이 2-3번 모여 연습을 하는 열의를 보이셨다. 할렐루야상

1교구 / 주님 되신 참 포도나무 / 아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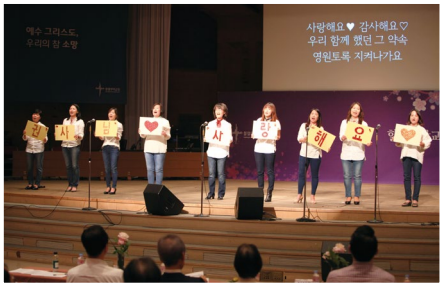
2교구 / I will follow Him / 평강상

3교구 / 예수님은 나의 왕 / 충만상

4교구 / 어쨌든 하나님 찬양 / 기쁨상

5교구 / 반갑습니다 / 할렐루야상

6교구 / 좋은걸 어떻해 / 믿음상



사모팀 / 좋은 이웃 축복송 / 축복상

7교구 / 아름다운 세상 / 성령상

9교구 / 사랑으로 / 소밍상

8교구 / 구원열차 / 사랑상

10교구 / You raise me up / 은혜상

은 한복을 입고 열정적인 안무로 환호를 받은 5조에, 기쁨상은 많은 웃음을 자아내며 음악극 무대를 선보인 4조에 돌아갔다. 진행의 재미를 위한 상이었을 뿐, 모든 조가 최선을 다한 최고의 무대였다. 스승의 날을 맞아,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 부목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움직이는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 시간에는, 응원하러 온 각 교구 총무단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일에 적극 동참하였다. 각 조별 권사들의 연합과 화합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의 축제였다. 선배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 그 믿음의 릴레이가 계속되길 소망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할렐루야의 모든 권사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아가야, 아가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저는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될래요

손미혜 집사(前 영아부 교사)

저희 부부와 아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영아부에서 불렀던 찬양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저희 부부에게 영아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예배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우리 세 아이들과 저희 부부, 우리 가족 모두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 특별한 곳입니다.

저희(남편 이상목 집사는 前 영아부 부장)는 영아부에서 10여 년을 섬기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영아부의 예배를, 찬양을, 인형극과 연극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세 아이는 성장하여 미국에서 큰딸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하여 IT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아들은 의대 진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셀 그룹 리더로 교회를 섬기며 선교에도 참여하며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2학년인 막내딸은 매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아부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자녀들이 자라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30주년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같이 섬겼던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적인 섬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고 또한 많은 새로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찬양과 율동은 더욱 풍성하였고 학부모님들이 참여한 찬양과 연주는 은혜로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영아부였습니다.

영아부의 30주년은 이제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다윗과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모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교회 영아부 3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아부의 선생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1)**

중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학교에 예배를 세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 광주, 용인, 수원지역 7개 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율학기 수업시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배수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이는 학생들 중 80%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새롬 목사(중등부 담당)

하탑중학교 기독교 동아리

황윤수(중3)

학교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중등부 설교시간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면 어떻겠나?'하는 얘기가 나와서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 신청서가 나오자마자 한 친구가 '기독교 동아리 만들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했고 결국 최소 인원을 모집한 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 이후 홍보 포스터로 현 약 40명의 친구들이 동아리에 들어왔고 지금도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약 20분~ 30분 정도 모이고 있다. 모이면 3~4곡 정도 찬양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일상생활, 즉 학교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 나누고 있다. 마지막은 친구들의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한다.

QR코드 찍고 동아리모임 영상보기

남수원중학교 목요 큐티모임

이수빈(중2)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수원중학교 큐티동아리 ebs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매주 목요일 아침시간에 8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돌아가며 대표기도를 한 후 청매 큐티책을 활용해 같이 큐티를 하고, 각자 집에서 영어로 성경을 읽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것에 목사님의 설교가 큰 영향을 줬는데요. 목사님이 동아리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 저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과 동아리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원을 모으고 영어큐티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52번째 가정

믿음이 싹 트는 가정!

고정완 · 양영미 집사(4교구)

예배하는 우리집 코너의 원고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기고하는 게 좋을지 생각한 끝에, 저희 아이(고윤혁, 7세)가 '큐티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윤혁이가 '큐티아이'를 받고 처음으로 시작할 때 했던 말은 '아우! 힘들어, 하기 싫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큐티아이' 한 권을 하루에 다 끝내야 하는 줄 알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루에 정해진 분량의 말씀만 읽어 가면 되고, '큐티아이'에서 제공하는 글씨쓰기, 찬양하기, 선 긋기 등의 다른 내용도 담겨 있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이가 먼저 하자고 조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2장 정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과정을 매일 진행하면서 이제는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또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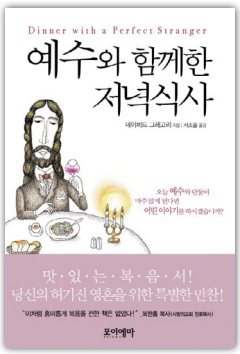
저 역시 아버지를 깨우는 모임, 사랑방 모임 등에서 많은 조력자 분들을 통해 영적인 가장,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점점 깨우치고 있으며, 아내 역시 여러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저희 가정은 앞으로도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저희 가정을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예배하는 우리집'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식사

데이비드 그레고리, 포이에마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일 대 일 초대장을 받은 주인공(닉)이 가상의 예수 배역을 가진 이와 저녁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진짜 예수를 알아가는 여정을 독자를 대신해 반론을 펼친다.

그는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대놓고 코웃음을 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예수와 대적할 만한 인터뷰어 노릇을 톡톡히 해낸다. 기독교 원리와 예수의 가르침은 심오하게 분석되는 것이 아닌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전달된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는 어느새 주인공 닉의 잊혀진 오래된 꿈과 상처를 상기시키며 용기를 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친구가 되어 있다.

닉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고민에 빠진다.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시점에 맞추어 기독교를 이해시키고 있는 점,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쉽게 돕는 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다.

유광자 집사(4교구)

• 이달의 추천도서는 2층 도서관과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의 목표 !

성령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하기~ (8)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을 마치고…

엘벧엘 가정사역팀의 '마더와이즈(Mother Wise)' 사역을 수료한 아내와 어머니들의 가정생활 속 짧은 간증 내용들을 매월 주제별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남편과의 일대일 데이트

이양지 집사(4교구)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을 통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쉬게 된 남편과 함께 아이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후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딸아이 이야기, 남편의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의 데이트였고, 항상 혼자서만 맛난 커피며 빵이며 먹으러 다녔는데 남편에게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항상 믿음이 약해 보이는 남편이라 그것이 제일 못마땅해 하던 부분이었는데, 나보다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 저보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고, 저에게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해주고 딸의 이야기 잘 들어주라고 좋은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은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라고 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나 우리 뜻대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는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가장의 무게가 참 무거웠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의 가장으로 그들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것을 가족들 앞에 내색하기보다 혼자서 삭히고 풀어왔던 남편에게 나는 원망만하고 남편이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게임만 한다고 혼자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제가 힘들 때 몸이 피곤할 때는 게임만 하는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번 데이트를 통해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둘만 데이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당의 화면이 LED 파노라마 전광판으로 ~!

5월 20일 주일예배부터 기존 4:3 비율 291인치 화면이 폭 18미터 높이 3.5미터 16:9 화면으로 3분할 되는 파노라마 화면으로 바뀌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드려

할렐루야고등부(김용진 목사)는 지난 5월 13일 40여 명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학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다. 1부 연합예배 시간에 김용진 목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관련 성경구절과 함께 전했으며, 2부에서는 학생 대표의 고등부 프로그램 소개, '우리 부모님이 맞습니다' 코너 외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서 등으로 진행되었다. 예배 후에는 초청 부모님, 고등부 교역자, 부장단이 함께 교사실에서 다과 시간을 가지며 고등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고등부는 학생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 유도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 향후에도 학부모님들과 교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황선태 장로, 시집 『산자락 물소리』 출간

지난 4월 황선태 장로는 두 번째 서정시집 '산자락 물소리'를 출간했다. 2016년에 '시와 시학'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첫 시집 '꽃길의 목소리'를 출간한 후 2년만이다. 이번 시집에는 삶 속에서 써내려간 시를 15편씩 4부로 나누어 총 60편의 시로 구성하였고 이향아 교수의 작품 해설로 마무리되어 있다. 서문에 시를 씀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정(情)도 사랑도 깊어졌다고 술회하면서 시는 솟아나는 사랑의 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김지훈 집사 마취통증 클리닉 정자동에 개원

10교구 김지훈 집사(박선영 집사, 백현사랑방장)는 정자동에 안마취통증클리닉을 개원했다. 성도님들에게 성실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했다.
장소 정자역 4번 출구 시그마타워 3층
전화 031-8039-5353

The 사랑방장과 함께한 특별한 파티

5월 6일 체육관에서 사랑방장들과 함께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또 다른 나의 가족 사랑방,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방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400여 명의 사랑방장과 목사님들이 함께한 기쁨 넘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김승욱 담임목사, 뉴웨이브 라디오 〈조이박스〉 출연!

지난 5월 17일 뉴웨이브 라디오 〈조이박스〉에 김승욱 담임목사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아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민정, 김신영 자매의 재치 넘치는 진행과 함께 1부 '목사님을 알아봐' 코너에서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김승욱 담임목사의 이야기를, 2부 '청년을 알아봐' 코너에서는 김승욱 담임목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라디오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며 뉴웨이브 라디오 〈조이박스〉는 유튜브를 통해 매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채팅을 통해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QR코드 찍고
조이박스
김승욱 담임목사편
다시 보기

할렐루야! 새가족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등록하신 분

-6월-
십자퍼즐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Cross Words!

아래 퍼즐의 정답과 이름, 교구 및 연락처를 적어서 점선을 따라 잘라서 매월 17일까지 신문사(221호)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호에서 알려드려요.

①		②		③		⑯		⑰
		④						
						⑮	⑬	
⑤					⑪		⑭	
					⑫			
⑥		⑦						
		⑧					⑩	
	⑨							

응모자 :　　교구 및 소속 :

전화번호 :

▶가로 문제

① 이번 달(6월호) 할렐루야 신문에 원로목사님께서 쓰신 특별기고의 주제가 되는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되어 세워졌으며 후에 ○○○으로 이전하여 ○○○교회로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을 주도할 뿐아니라 1936년 주기철 목사가 부임하여 목회하기도 했다.

④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살았던 레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이자 사무엘의 어머니(삼상1,2,대상6). 아이를 갖지 못해 오랫동안 번민하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다(삼상1).

⑤ 모세의 사촌인 ○○는 광야에서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온과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을 동원하여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다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고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였다(민16). 그러나 그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후대에 성전 문지기(대상9,26)와 찬송하는 자(대하20),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대상9)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시편에는 그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된다(시42,44~49,84,85,87,88). 선지자 사무엘 등은 이 자손들로 보인다(대상6).

⑥ 블레셋 가드 출신 골리앗의 동생으로 그는 형과 같이 몸이 장대하여 그가 지닌 창자루가 베틀채 같았다(대상20).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엘하난이 그를 죽였다(삼하21).

⑧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바로에 의해서 얻은 애굽식 이름. 이 이름을 받고 그는 온의 제사장 아스낫과 결혼하여 애굽에서 공식적으로 총리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한다(창41).

⑨ 12소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브두엘의 아들이다. 그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여 죄사함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더 없이 복된 은총의 날이기도 하다고 말씀한다(욜2).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행2).

⑫ 12.아히감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루살렘 함락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렸으나 암살롐에게 살해되었다(렘39,40,41).

⑭ 갈멜산 근처에 있는 평야. 아2장은 그 아름다움을 "나는 ○○의 수선화"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상27장에서는 "○○사람 시드래는 ○○에서 소떼를 맡았고"라고 말씀한다. 또 사65장이 "○○은 양 떼의 우리가 되었고"와 같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곳은 좋은 목축지대였다고 보여진다.(사35:2).

⑮ 가나안 사람이며 유다의 장인(창38:대상2)으로 유다는 그 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셀라 등 3형제를 낳았다. 장자 엘은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엘의 죽음으로 훗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대상2).

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으로(창22) 솔로몬이 이 곳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대하3).

▼세로 문제

① 앗수르 왕이며 니느웨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고 즉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반 앗수르 정책을 펼쳐 팔레스타인 주변국들을 정복하였다. 유다마저 침공하여 정복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유다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의 보화를 내주고 공물을 바치기도 했다(왕하18).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전쟁을 선언하였으나 결국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당하고(왕하19) 자기 나라로 돌아가(대하32,사37) 그 자신도 자신이 섬기는 신전에서 살해 당한다(왕하19).

② 룻이 기업 무를 자인 보아스의 침소에 들었을 때에 밤중에 자신의 침소에서 그녀를 본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성읍 백성이 룻에 대하여 어떠한 여자인지 다 안다고' 하였다(룻3). 잠언 31장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귀하게 표현하였다.

③ 신약시대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이던 곳으로 (마4,막1,행9) 바벨론 포로 기간 중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스8), 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막1,눅4,행13,약2), 자녀 교육과 재판(눅12,행9) 등이 행해졌다.

⑤ 사해 남쪽 끝 샛밭 골짜기의 저지대에 있던 네 성읍(소돔,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더불어 다섯 성읍을 이루고 있으며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여 유황불에 멸망하였다(창10,13). 그후 범죄하다 하나님께 불심판당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리운다(레23,사1,13,암4,마10,벧후2,유1).

⑦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바벨론 이름은 '메삭'(단1)이며 바벨론 행정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단2), 우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였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단3).

⑩ 므낫세 왕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로 남왕국 유다의 제15대 왕이었다(왕하21). 그는 22세에 왕이 되어 부친 므낫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다(왕하21,대하33). 2년 간 통치한 후 신복들에 의해 살해된다(왕하21).

⑪ 헤롯의 아들로 그는 부친의 영토 일부분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으며 자신의 누이 버니게를 아내로 맞이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 앞에서 심문을 받았다(행25,26).

⑬ 웃시야 왕 때의 제사장으로 웃시야가 성전에 직접 들어가 분향하려 하자 80인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에게 들어가 '제사는 왕의 일이 아니라'고 막았으며 웃시야가 노하여 그를 처벌할 때에 여호와께서 웃시야를 쳐서 그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된다(대하26)

⑯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소돔이 멸망한 후에 롯의 맏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아들(창19)이며 훗날 민족을 이룬다. 그 후손들은 우상 '그모스의 백성'이라 불린다(민21).

⑰ '떠나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를 가리킨다(레16). 즉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 선택된 한 마리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것을 '○○○'이라 부른다. 제사를 마치고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 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리고 버려지신(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사53:6,11~12).

출제 김정진 목사(7교구 담당)

지난 호 정답 및 당첨자

겐	그	레	아		에			
	핫		멘		베	스	도	
					소		비	
내	꿈	을	찾	아	서		야	슙
시				도				
				니			아	
므	리	바		야	살		하	만
낫					로	이	스	
세	일	산			메			

박예인(청년부, 2466)　　김희영(5교구, 0511)
김명희(1교구, 3479)　　문수환(6교구, 3231)
최혜숙(2교구, 4933)　　한상순(7교구, 5905)
박미영(4교구, 9392)　　이교임(8교구, 7806)
박경희(5교구, 8937)　　서명순(9교구, 6477)

※주일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신문사(221호)에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을 피눈물 나게 넘으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을 했고, 때로는 서로를 응원했으며,
어떨 때는 서로 등을 돌렸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주님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중 최선은 십자가를 바로 세워
그 십자가의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남과 북.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관계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올바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글/그림 한정훈 집사(신문위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 이사야 42:6 -

2019. 06